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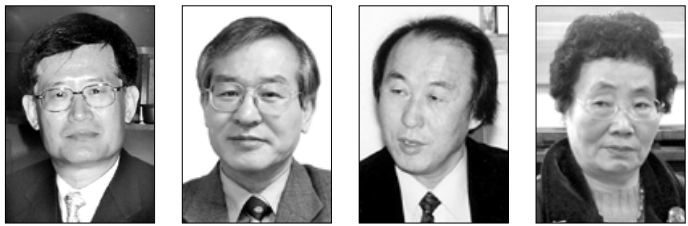
재가연대 '1만가족 공동체' 나선다

새 집행부 상임대표에 김동건 변호사 추대

불교개혁운동을 전개해온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참여불교운동을 확산시키는 활동으로 제2도약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월 2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김동건 상임지도위원(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을 새 상임대표로 추대했다. 창립부터 7년여 동안 재가연대를 이끈 박광서 현 상임대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활동에 전념하며 당연직 공동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이 외에도 김희옥 교단자정센터 원장, 백경남 대명명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립 조계종중앙신도회 부회장, 윤천수 (사)불교아카데미 이사장, 이민용 재미 불교학자, 이수덕 前 불교TV 사장 등도 공동대표로 재가연대를 이끌어 나간다.

재가연대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7년간의 활동을 통해 쌓인 내적 역량을 사회속에 좀 더 구체



김동건 박광서 김희옥 백경남



김성립 윤천수 이민용 이수덕

화하고 대중화하는 운동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교리더 발굴과 네트워크화에 주력한 그동안의 활동에서 회원확대를 통한 '1만 가족 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건 상임지도위원을 새 상임대표로 추대하는 이유로 불교의 사회화운동과 참여

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불교사회화 운동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999년 조계종 폭력사태를 계기로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로 결성된 이후 박광서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불교계의 개혁운동과 재가불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면서도 산하에 교단자정센터와 (사)불교아카데미, 참여불교네트워크,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찰경영연구소, NGO리서치 등 전문가관을 설치해 활동반경을 점차 확대하며 '참여불교'의 새 영역을 개척해왔다. 제4기 집행부는 11월 25일 오후 3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공식 출범한다.

김동건 새 상임대표는 "활동영역을 불교계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넓은 안목으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NGO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천성산지킴이 지출 스님 업무방해 혐의 집유 2년

경부고속철도가 관통하는 천성산 환경보전운동을 펼쳐온 지출 스님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3 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구간의 공사를 저지한 지출 스님에 대해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출 스님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지출 스님)은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천성산의 자연생태계 파괴를 주장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영동군, 영국사 부도탑 해체 보수과정서 사찰에 통보않고 발굴 물의

영동군청은 기술어져 있는 영국사 원구형부도(지방유형문화재 186호)를 바로 세우기 위해 10월 18일 해체보수 공사를 시작했지만 사전에 사찰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공사 중 부도아래서 매장유물(유리염주 2점, 금속으로 만든 반지 2점)이 발견됐지만 유물발굴전문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유물을 발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은 "해체보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화재 관리·소유자에게 공문 등의 서류를 통해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비단 영국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사찰 성보에 대한 공은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청은 10월 31일 영국사 원구형부도 보수 공사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인정하고 영국사 측에 공식사과의 뜻을 전했다.

노병철 기자

평불협, 北 건축사재 지원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상임대표 법다, 이하 평불협)가 북한에 건설중인 불교복지시설에 쓰일 7만달러 상당의 건축사재를 지원했다.

평불협은 10월 23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에 변압기, 고압케이블, 페인트와 의류 5000점 등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간 생필품 위주의 지원과 달리,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자재지원에 대북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형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불교도연맹이 건립중인 불교복지시설은 지상 15층 지하 2층 규모로 평양 고려호텔과 200m 거리에 세워진다.

박봉영 기자

제인구달 박사 빙그릇운동 동참

8일 화계사에서 '희망의 밥상' 강연·발우공양

세계적인 생명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영국의 제인 구달(Jane Goodall·사진) 박사가 11월 8일 오후 4시 서울 화계사를 찾아 '희망의 밥상 환경강연회'를 개최한다. 또 화계사 대웅스님 등과 함께 '빙그릇 운동'에 동참하는 발우공양을 하며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벌인다.



제인 구달 박사

제인 구달 박사는 환경강연회에서 '희망의 밥상'과 발우공양의 현대적 의미로서의 빙그릇 운동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연을 펼친다. 이어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한 뒤 6시부터 화계사 주지 수경스님, 국제선원 대웅스님 등과 함께 차담을 나눌 예정이다.

제인 구달 박사는 1960년부터 탄자니아 곰비국립공원에서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면서 전 세계

박봉영 기자

'불교뉴라이트' 이달 27일 창립

홍교·혜총·일면 스님 동참

불교계에도 보수우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11월 27일 창립된다. 일반사회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대표 김진홍)의 불교조직인 불교뉴라이트가 그것.

불교뉴라이트 발기인대표 장산스님(서울 대각사 주지)은 "대한민국 정체성 재확립을 위한 국민문화운동에 불교계가 동참하고 선진 대한민국 건설과 평화통일에 일조하기 위한 불자 애국운동 차원"이라고 창립목적을 밝혔다.

불교뉴라이트는 향후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참여하면서 세미나와 강

연회를 열어 불교계 내 뉴라이트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또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치지도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불교뉴라이트 발기인에는 대각회 이사장 홍교,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장 혜총, 前 조계종 총무부장 선용, 조계종 근중특별교구 교구장 일면 스님 등 100여명의 스님과 이기표 부산보현의집 원장, 손양호 한국관광정보센터 이사장, 이희송 광고고교장, 양성홍 조계종 포교사단장, 김진관 서울광역시도회장, 정인아 창립목적을 밝혔다.

박봉영 기자

용인 대덕사, 공사장 소음·먼지로 '몸살'

용인사 용인포교당인 대덕사(주지 탄탄)가 사찰과 인접한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대덕사 주지 탄탄 스님은 "사찰 주변의 산을 파헤치고 공장을 짓는 공사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되면서 공사소음과 먼지가 발생해 종교행사와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법회 참석인원이 1/3 가량

줄었고, 나무를 모두 베어내 도랑이 외부에 노출돼 경관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대덕사는 공장과 도랑 사이에 완충림을 조성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어서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봉영 기자

북핵반대 운동본부

종교문화축제 난입 사과

7대 종교의 문화행사인 종교문화축제 무대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북핵반대·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천만인 서명운동본부(공동대표 김성은, 이하 북핵반대운동본부)측이 11월 1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사무국을 방문, 사과했다.

북핵반대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서경석 목사(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와 송진섭 조직본부장, 김병관 서울시재향군인회장 등은 종지협 운영위원장 지원 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운영위원 홍창진 신부(천주교주교회의 종교간대화위원회 총무)와 만난 자리에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에 의해 7대 종단의 행사공원이 중단되고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3년간 87억여원

교육부서 지원 받는다

동국대(총장 홍기삼)가 교육인적자원부 시행 2006년도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정부로부터 3년간 총87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2008학년 입학정원을 5% 추가 감축하고,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특성화분야로 대학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Asia분야(불교학, 지역학), Bio분야(생명과학), Culture분야(영성문화콘텐츠), IT+NT분야의 특성화와 전문대학원(MBA, Law School) 개원 및 인가를 추진하며, 경주캠퍼스는 문화·관광분야, 환경·에너지분야, 생명·환경분야, 일산캠퍼스는 임상의학(Medical School), 기초생명과학 분야, 의생명과학 분야로 특성화를 추진한다.

남동우 기자

여성개발원, 기금마련 바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11월 16~18일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에서 '제1회 불교여성인재양성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바자회에서는 김해자(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씨의 누비승복과 정경연 교수(홍대 섬유미술학과)의 관화, 주한 미국 대사 부인 리사 버쉬바우(공예가)씨의 브로치 등 예술품들이 기증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02)722-2101

여수령 기자

새 백년, 새 역사, 새 총장님!

2007년 건학 101주년, 동국대학교를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이끌어주실 총장님을 모십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초빙

- 응모자격
 - 동국대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분
 - 사립학교 교원 임명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총장의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 인사로 교·직원 불교계(조계종) 재적승려,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분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 (A4 3매 이내)
 - 동국대학교 발원 및 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 (A4 5매 이내)
 - 추천서
- 제출마감 및 제출방법
 - 제출마감 : 2006. 11. 16(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또는 e-mail (e-mail 제출시 사진 전회문의 요망)
- 접수처
 - (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

- 기타
 - 각종 양식 등 세부내용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dongguk.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임추천을 취소할 수 있음
 - 문의 : TEL 02-2260-3005~7 FAX 02-2260-8973 E-mail dguf@dongguk.edu

www.dongguk.edu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임 영 배